

# “전주 뿌리산업 육성 적극적 투자를”

###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시 입주 기업 상당수 영세한 규모로 경영에 큰 어려움 겪어”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사진)이 기초 공정산업육성으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 투자를 촉구했다. 김남규 의원은(송천동)은 23일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전주시에 입주한 뿌리기업 중 상당수가 영세한 규모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뿌리기업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 투자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에 입주한 뿌리기업은 51곳으로 직원 764명이 일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뿌리기업 가운데 직원이 10명 이하인 뿌리기업이 40여곳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뿌리산업이란 기초 공정산업으로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를 말한다. 뿌리산업의 중요성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도내 뿌리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만 20억원을 투자하고, 해외시장 진출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도 올해 뿌리산업 기원 지원에 1억6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했지만 개별기업 지원형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뿌리기업 박람회,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방향을



**국제인쇄전자 워크숍** 23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16 국제인쇄전자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워크숍에 송찬희 도지사를 비롯한 해외 참석자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선화해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 전폭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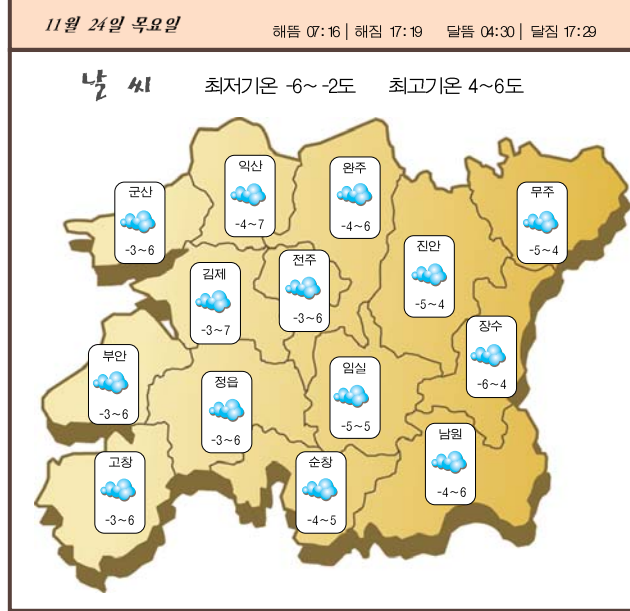
김 의원은 또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 인근 남부시장에도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다”며 남부시장 주차장 확충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남부시장은 아시안의 활성화와 한옥마을을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주차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남부시장 주차장시설 인프라를 더 보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을 안내하는 주차장 위치와 주차기능 대수 등을 알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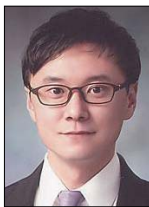
는 전광판 주차요원의 서비스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주차유도 동선 안내 등 남부시장 주차장 현대화사업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 편리성을 고려한 주차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 “소각자원지원센터 운영수익, 시 세입예산서 제외”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사진)이 전주 시 소각자원지원센터 운영 수익이 전주 시 세입예산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회계감사를 주문했다.



허승복 의원(중앙, 풍남, 노송동)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전주 시 사업도 운영 수익은 전주 시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도 전주 시 소각자원지원센터 운영 수익은 전주 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특별회계감사를 요구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104조, 행정사무위탁 규정,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면 위탁사무의 독립채산제 운영일지라도 운영 수익은 전주 시 세입예산에 편성돼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면 지금까지의 소각 자원지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전혀 전주시의 세입에 산입되지 않아 위법한 운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허 의원은 “주민편익시설의 회계결산자료상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이월금이 이월되지 않고 사라져버린 서류들이 시에 제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외부 회계를 위축해서라도 특별회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리사이클링타운이 BTO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전주시의 부속사업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전주시 전체 민간위탁 및 독립채산제 운영에 있어서 수익 사업의 세입예산 편입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 나노섬유 대량생산 기술 (주)대창에 이전

### 대창 통해 나노 멤브레인 대량 생산 체제 돌입 공동 연구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나노섬유 대량 생산 기술을 (주)대창에 이전했다

전북대와 (주)대창은 23일 이남호 총장과 이길상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김철생·박찬희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부)가 (사)캠텍종합기술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폭 1m의 상향식 고속전기방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노출이다.

전기방사법은 나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많은 제품들이 기업에 의해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모두 실험실 수준의 단일 노즐을 이용한 나노섬유 샘플을 제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전북대 연구진은 2014년 폭 1미터의 상향식 고속전기방사 시스템

을 개발해 난방사원 형태(Random mesh type)의 나노 섬유 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술개발 완료 후에도 꾸준한 자체 연구를 수행, 올해 기존 방식보다 100% 이상 성능이 향상된 고속 전기방사 노즐 블록을 개발해 그간 문제였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최근 학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렬된 투명 나노섬유(Aligned type) 고속 전기방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도 확보했다.

이후 이 기술은 총 7억6000만 원이 지원되는 2016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선정돼 이번에 전북대가 (주)대창에 1억 원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이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은 (주)대창을 통해 나노 멤브레인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하고,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에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총장은 “연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두 기관이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우수 인재 양성과 연구 분야에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나노섬유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원광대, 몽골 울란바토르 5개 고교와 업무협약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는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5개 고등학교와 유학생 유치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1일 원광대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김도종 총장과 몽골 제20고등학교, 제40고등학교, 제57고등학교, 제93고등학교, 제113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와 몽골의 1개 고등학교 간 1대 1 협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원광대와 몽골 5개 고등학교는 학생교류 및 국제 대학진학 시스템 구축 등 국제간 협력의 비약으로 공동발전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원광대는 2017년 4월 중 울란바토르 고교생을 대상으로 원광대 유학생명부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몽골 지역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